

자동차부품 재사용 촉진을 위한 공청회 자료

교통안전공단(이사장 김종희)은 자동차부품의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전문가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난 3월 17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현재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는 지난해에 건설교통부로부터 연구용역을 위탁받아 수행중인 바, 이 연구용역은 폐차 대수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중고·재생부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부품의 재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2003년 폐차대수 54만 9천여대 (2002년 대비 19% 증가))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주제로는, 첫째, 자동차폐차업을 자동차해체업으로 전환하고 자동차부품재생업을 신설하며, 둘째, 중고·재생부품 판매시 이들 부품의 안전성이 보장되도록 부품저장창고 등 시설기준을 강화하고 보유기술 인력기준을 신설하며, 판매되는 중고·재생부품에 대해 표지(차종·연식·주행거리 등 기재)를 부착하고 그 품질에 대한 보증을 의무화하는 것 등이었다.

한 연구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중고·재생부품과 관련된 사업을 제도권안으로 유도함으로써 재사용부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자원의 재활용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연구관계자는 말했다.

1. 폐차시 재사용할 수 있는 부품의 허용과정

장치별 \ 년도	1983	1984	1987	1992	1996	1999	2003
원동기	주1	→	주1, 주2	→	주1, 주2, 변경기간내 원동기	→	전면허용
동력전달장치	X	후차축 하우징	반축기, 전·후 차축	→	전면허용	→	전면허용
주행장치	타이어, 디스크휠	→	→	→	전면허용	→	전면허용
조종장치	X	X	X	X	X	전면허용	전면허용
조향장치	X	X	X	X	X	X	조향기여기구 이외허용
제동장치	X	X	X	X	X	X	마스터 실린더, 배류장치 이외허용
압축장치	X	X	X	X	전면허용	→	전면허용
연료장치	X	X	X	X	연료탱크	전면허용	전면허용
전기·전자장치	X	X	X	시동 전동기, 발전기	전면허용	→	전면허용
차체 및 차대	X	범퍼, 문턱, 본넷, 캡, 휠다	→	→	→	전면허용	전면허용
승차 및 물품 적재장치	X	X	X	X	전면허용	→	전면허용
기 타					주3	→	→

주1. 원동기 : 폐차예정일 15일 이내에 재생정비를 받은 것은 재활용 가능

2. 경유원동기 : 자동차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재활용 가능

3. 수출의 경우 : 1996년 12월 9일 이후 전 장치에 대해 전면허용

2. 연도별 폐차대수와 업체수

연도	자동차등록대수	폐차대수		폐차업체 수		업체당 폐차대수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1993	6,274,008	19.9	308,252	22.0	86	22.9	3,584
1994	7,404,347	18.0	352,582	14.4	104	20.9	3,390
1995	8,468,901	14.4	406,055	15.3	141	35.6	2,860
1996	9,553,092	12.8	489,178	15.7	160	13.5	3,057
1997	10,413,427	9.0	585,641	19.7	185	15.6	3,165
1998	10,469,599	0.5	562,168	-4.0	227	22.7	2,477
1999	11,164,319	6.6	456,191	-18.9	259	14.1	1,761
2000	12,059,861	8.0	455,592	-0.1	282	8.9	1,616
2001	12,914,115	7.1	461,621	1.3	291	3.2	1,586
2002	13,949,440	8.0	462,996	0.3	300	3.1	1,543
2003	14,587,333	4.6	549,250	18.6	310	3.3	1,772

3. 순정품대비 중고부품 가격비교

(금액 : 원)

부품구분	중고부품 구입가격				순정품 (C)	
	고가(A)	비율(A/C), %	저가(B)	비율(B/C), %		
기능성 부품	원동기(DOHC)	200,000	12.1	70,000	4.2	1,650,000
	자동변속기	60,000	3.9	30,000	1.9	1,540,000
	등속조인트	15,000	11.6	5,000	3.9	128,700
	교류발전기	10,000	7.9	3,000	2.4	126,500
	냉매압축기	10,000	2.9	5,000	1.5	341,000
	시동전동기	10,000	9.1	3,000	2.7	110,000
	소 계	305,000	7.92	116,000	2.77	3,896,200
인장 부품	후 드	50,000	45.4	30,000	27.3	110,000
	도어(전우측)	30,000	25.9	25,000	21.7	115,500
	전조등(우측)	20,000	36.4	10,000	18.2	55,000
	전면 유리	20,000	16.6	10,000	8.3	120,000
	소 계	120,000	31.07	75,000	18.88	400,500
총 계	425,000	9.9	191,000	4.4	4,296,700	

※ 현대 쏘나타 II의 95년식 자동차

- 중고부품의 상태에 따라 가격 차이가 심하며 외장 부품이 기능성 부품보다 순정품 가격 대비 높은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음
- 외장부품들은 폐차업체의 어셈블리 구성과 순정품의 구성이 상이하여 단순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4. 순정품대비 재생부품 가격비교

※ 현대 쏘나타 II의 95년식 자동차

- 재생부품은 재생과정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발생되며, 특히 내부 핵심 구성품의 신품 교체 유무에 따

- 라 재생부품의 품질과 함께 부품의 가격이 결정됨
- 재생부품은 중고부품에 비해 품질이 좋다는 장점이 있으며, 이러한 재생부품의 안전도 및 품질 확보는 재생 공정에 의하여 전적으로 좌우됨
- 재생부품의 사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생 공정의 공개, 즉 교체된 신부품의 종류와 수리 내용, 완성된 재생부품의 검사과정 등과 함께 자동차 관리사업으로 재생부품업의 관리가 필연적으로 수반되어야 함

(금액 : 원)

부품구분	중고부품 구입가격				순정품 (C)	
	고가(A)	비율(A/C), %	저가(B)	비율(B/C), %		
기능성 부품	원동기(DOHC)	800,000	48.5	400,000	24.2	1,650,000
	자동변속기	350,000	22.7	250,000	16.2	1,540,000
	등속조인트	40,000	31.1	30,000	23.3	128,700
	교류발전기	40,000	31.6	30,000	23.7	126,500
	냉매압축기	85,000	24.9	65,000	19.1	341,000
	시동전동기	40,000	36.4	25,000	22.7	110,000
	소 계	1,355,000	32.53	800,000	21.53	3,896,200

5. 일본 및 독일 폐차관련 제도비교

구분	국내	일본	독일
폐차관련 법령	자동차관리법, 자원재활용법	리사이클법 (2002년 7월 공포)	폐차처리법 (1997년 공포)
폐차증명서 도입	1982년부터 적용	2004년부터 적용	1998년부터 적용
폐차업 관리주체	건설교통부	환경성/경제산업성	연방환경부
폐차업 시업기준	등록제	5년 주기 허가제	허가제 (정기적인 검사)
폐차업 시설기준	명문화 (예: 시설기준)	별도로 없음	상세사항 명문화 (예: 작업장비 바닥의 포장무늬)
폐차에 대한 보상	현재	유상 (노후차량 : 유상)	유상/비용정수 혼재 (노후차량:비용정수)
	향후	-	2004년 이후 자동차 사용자 신차 구입시
부품재사용규제	있음 (시행규칙제138조)	없음 (자율적 관리 : 가이드라인)	없음 (자율적 관리)
중고부품사업	음성화	양성화	양성화
재생부품사업	음성화	양성화	양성화

- ※ 일본 및 독일 자동차 제작사들은 중고부품 유통 사업을 하고 있으며, 또한 BMW, 포드, 볼보, 스카니아의 경우는 자체적으로 재생부품 사업도 하고 있음